

초기 성문암의 방사선 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유 서 윤 · 박 찬 일

연구목적: 종양 환자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종양의 치유율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 보존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 성문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방사선 치료가 주요 치료법이 되고 있다. 이에 근치적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초기 성문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79년 2월부터 1991년 7월 31일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치료를 받은 9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전체 환자의 연령 분포는 35~77세(중앙값 57세)였고, T1N0M0인 환자가 67명, T2N0M0인 환자가 31명이었다. 방사선 치료는 98례 모두 ^{60}Co 를 사용하였고, 1일 175~200 cGy의 범위, 총 조사선량 5775~7600cGy(중앙값 6745cGy)를 조사하였다. 추적 관찰 기간은 7~183개월(중앙값 80개월)이었다.

결 과: 전체 환자 군의 5년 생존율은 80.3%, 5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87.1%, 5년 무병 생존율은 87.1%였다. T1N0M0군의 5년 생존율은 81.8%, 5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87.5%, 5년 무병 생존율은 75.8%였고, T2N0M0군의 5년 생존율은 77.1%, 5년 질병 특이 생존율은 86.4%, 5년 무병 생존율은 60.8%였다. T1N0M0군과 T2N0M0군간의 생존율, 질병 특이 생존율, 무병 생존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1N0M0군중 6500cGy 미만으로 치료받았던 54명의 5년 국소 제어율은 77.0%였고, 6500cGy 이상으로 치료받았던 13명의 5년 국소 제어율은 90.2%로 총 조사선량에 따른 국소 제어율의 차이는 없었다. T2N0M0군 중 7000cGy 미만으로 치료받았던 15명의 국소 제어율은 79.9%였고, 7000cGy 이상으로 치료받았던 16명의 5년 국소 제어율은 73.3%로 총 조사선량에 따른 국소 제어율의 차이는 없었다.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가 21명으로 이 중 15명이 구제적 요법을 시행받아 9명에서 장기 생존을 보였다. 전체 환자의 상대 보

존율은 79.6%였다. 이차성 악성종양이 발현된 경우는 8예로 설암 1예, 하인두암 1예, 폐암 2예, 식도암 1예, 위암 2예, 전립선암 1예였다.

결 론: 초기 성문암은 방사선 치료만으로 높은 생존율과 상대 보존율을 보였다. 치료 실패는 대부분이 국소 재발이었고, 국소 재발한 경우 후두전적출술 등의 구제적 요법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치료 후의 정기적 관찰을 통한 재발 및 이차성 종양의 발현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병기 3, 4기 후두암환자에서 치료방법에 따른 성적 비교 연구

연세의료원 연세 암센터, 방사선종양학과, 이비인후과*
금기창 · 김귀연 · 서창욱 · 이창걸
홍원표* · 최은창* · 김영호*

목 적: 진행된 후두암환자의 근치적 치료방법은 외과적 절제술인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방법과 방사선 치료후에 구제적 요법으로 수술적 요법을 이용한 치료 방법 사이에 성적을 비교 연구한 보고는 없다. 또한 최근에 후두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유도화학요법을 시행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수술후 방사선 치료방법에 비하여 생존율의 감소없이 높은 후두 보존율을 보고하고 있으나 유도화학요법 후 방사선 치료방법과 방사선 단독 요법 사이에 비교 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높은 후두 보존율이 유도화학요법의 효과인지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저자들은 방사선 단독치료군과 유도화학요법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과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시행된 군의 치료성적을 비교하여 진행된 후두암환자에서 최선의 치료의 방법을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82년 1월부터 1992년 12월에 연세 암센터에 내원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은 154명의 진행된 후두암 환자(병기 3, 4기)이고, 연령상피세포암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에 암으로 치료받은 환자, 고식적 목적으로 치료받은 환자, 원격전이가 있는 환자, cis-